

01 2012여수세계박람회

역사상 처음으로 바다 위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



▶ 빅오

세계박람회는 전 세계 여러 국가가 모여 하나의 주제 아래 특색 있는 전시를 펼치는 축제의 장이다. 금은동 메달과 순위 선정은 없지만,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로 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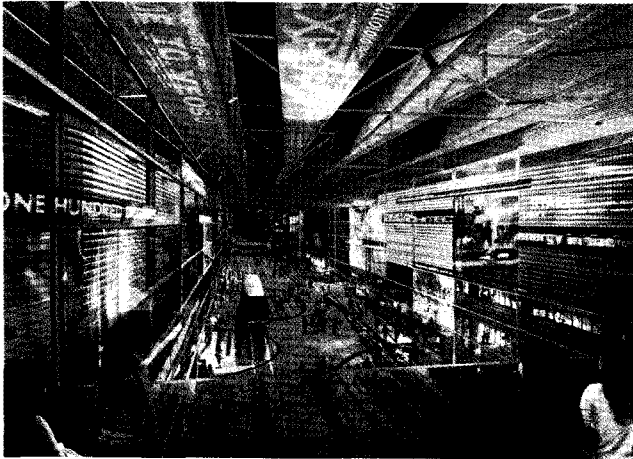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

내년 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100여 개 국가가 여수에 모여 세계 최고의 해양 관련 전시를 선보이고, 10여 개에 이르는 전시관 및 체험시설,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현란한 해상쇼, 세계적인 스타와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준비된다. 또 초대형 파이프오르간, 전자 미술관, 바다 위 공연장 등 웅장하고 독특한 건축물도 들어선다. 내년 여수엑스포에는 국내의 80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보이며, 3개월의 엑스포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는 88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보다 큰 12조2천억 원(생산유발)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장 건설 공사는 현재 70%(9월 중순 기준) 완료됐다. 올해 말이면 대부분 전시관, 건축물 등 하드웨어 공사가 끝나며, 각 국가가 꾸미는 국제관을 제외한 모든 전시 콘텐츠들도 설치에 들어가게 된다.



글 조용완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홍보실장 c49512@expo2012.or.kr  
글쓴이는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S-Oil 주식회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정책보좌관·홍보지원단장 등을 지냈다.



▶ 엑스포갤러리는 첨단 IT기술을 이용해 KTX 여수역에서 박람회장으로 직결되는 통로에 설치되는 전자 미술관이다.

참가자 유치도 매우 순조롭다. 현재 목표 참가국 100개국을 유치 달성했으며, 아시아·유럽·미주·아프리카 등 각 대륙별로 고른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전 박람회 유치 현황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편이다. 해외 각국 이외에도 UN을 비롯한 8개 국제기구가 참가하고, 국내에서도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포스코, GS 등 7개 기업이 참가를 확정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까지 완벽한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는 박람회장을 임시 개장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위 사무국도 박람회를 10개월 여 남긴 6월 말 여수로 전체 이천해 현장에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 세계가 주목할 스카이다워, 빅오, 엑스포갤러리

1889년 파리세계박람회는 에펠탑을 남겼고, 1893년 시카고세계박람회는 관람차(페리스 휠)를 남겼다. 대전세계박람회(엑스포)는 익히 알려진 대로 첨성대를 본뜬 한빛탑으로 사랑받았다. 박람회 당시 이들 건축물은 하나같이 보는 이에게 경이와 즐거움, 희망을 안겨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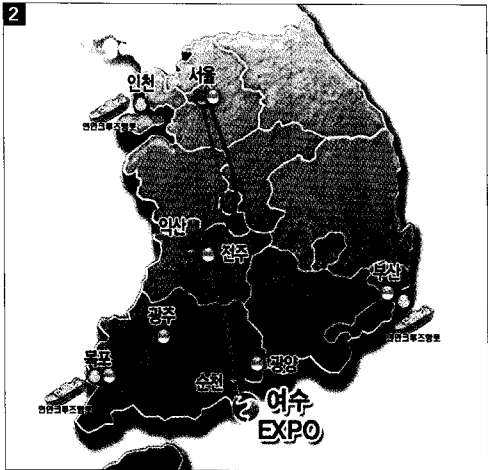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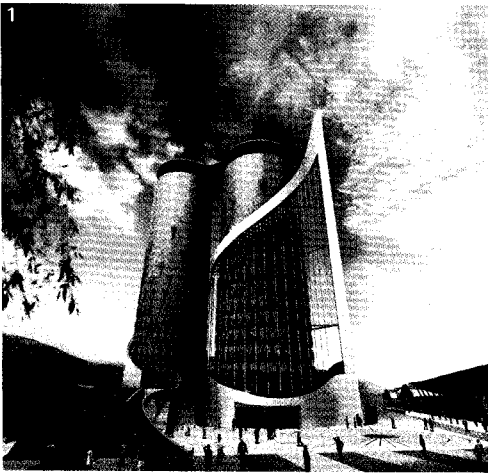
이들을 따라잡을 여수엑스포의 파격 아이콘은 무엇일까?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뽑은 세 가지는 빅오, 엑스포갤러리, 스카이다워다. 이 시설들은 각각 여수엑스포의 주요 콘셉트인 '문화체험', '유비쿼터스', '친환경'을 가장 잘 보여준다.

빅오는 박람회장 앞바다의 방파제를 육지와 연결해 만든 해상공간이다. 박람회 기간 중 열리는 대규모 공연과 이벤트가 집중되는 문화의 메카이기도 하다. 해안 공간은 크게 에코존, 쉼터존, 워터존으로 구성돼 해양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상에는 움직이는 무대와 분수, 거대한 높이의 O자형 구조물, 주제관으로 연결되는 다리(여니교, 수니교)가 설치된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매일같이 환상적인 멀티미디어쇼를 볼 수 있다. 레이저와 조명, 불꽃과 분수, 워터 스크린 영상이 합쳐져 그동안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최대 규모의 미디어쇼가 연출된다. 특히 수면 아래 20cm까지 가라앉았다가 떠오르는 해상무대는 마치 물 위에서 공연하는 듯한 시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스타와 아티스트들이 공연하고 매주 주말에는 유명 DJ와 댄스가수들이 함께하는 야간 댄스쇼도 해상무대에서 펼쳐진다.

두 번째 랜드마크인 엑스포갤러리는 첨단 IT기술을 이용해 KTX 여수역에서 박람회장으로 직결되는 통로에 설치되는 전자 미술관이다. 총길이 415m, 너비는 21m에 이르며 통로 천장을 LED 스크린으로 가득 메우고, 그 위로 해저도시에 들어온 듯 경이로운 바다 영상과 조명이 펼쳐진다. 엑스포갤러리는 IT 기술을 통해서 바다와 인간 사이의 소통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무엇보다 관람객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 능동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어 흥미롭다. 화면 위를 유영하는 고래에게 희망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고래가 메시지에 비례해 점점 크게 자라고, 특정 장소에서 함께 외쳐 고래를 불러오는 식이다.

여수세계박람회에서는 버려진 시멘트 저장고를 철거하지 않고, 활용해 친환경 박람회의 상징물로 만들기로 했다. 그렇게 시멘트저장고는 높이 55m의 초대형 파이프 오르간으로 재탄생하게



▶▶ 1 버려진 시멘트 저장고가 높이 55m의 초대형 파이프 오르간인 '스카이다워'로 재탄생한다. 2 박람회 개최 전에 광역 교통망 확대로 여수로 오는 길도 편해진다.

됐다. 스카이다워 외벽에 설치되는 파이프오르간을 통해 뱃고동 소리와 아리랑 등이 연주되고, 관람객이 직접 연주할 수도 있다.

스카이다워 내부에 들어가면 선사시대의 한반도 연안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반구대암각화 영상을 볼 수 있고, 해수 담수화 시설을 통해 생산된 물도 마셔볼 수 있다. 꼭대기 전망대는 여수 시내와 오동도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 SOE, 숙소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

관련 SOE도 박람회 개최 전까지 속속 확충될 예정이다. 광역, 시내 교통망이 순차적으로 개통되는데, 가장 먼저 지난 4월29일 완주에서 순천까지 고속도로 전 구간(118km)이 개통돼 수도권에서도 3시간 대 접근이 가능해졌다.

철도편 역시 익산-순천간 전라선 복선전철화사업(142.6km)에 따라 10월부터는 용산역-여수역 간 KTX가 운행되며 3시간 21분 가량 소요된다. 또한 여수역 신역사가 엑스포장 입구에 준공돼 지난해 말부터 운영되고 있어 철도 이용객은 역에서 하차하면 바로 엑스포장에 입장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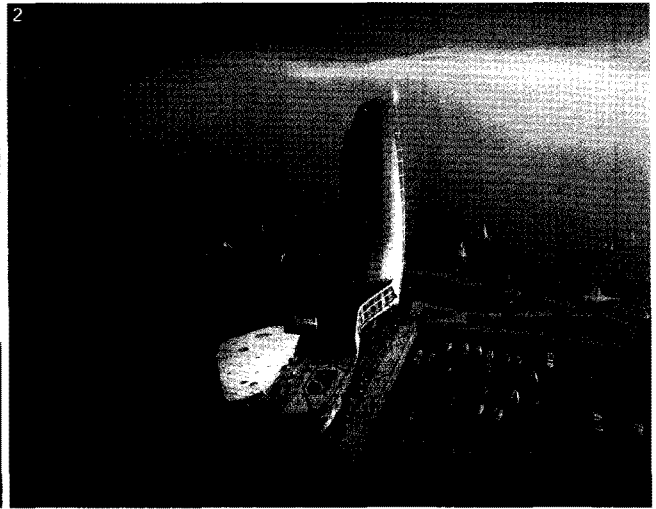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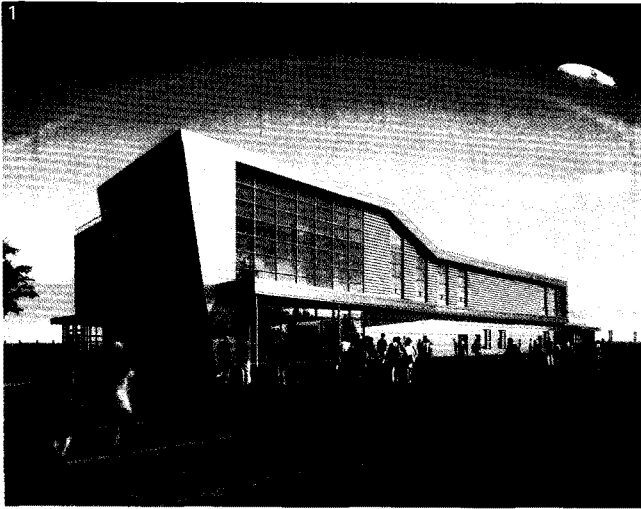
대구·부산 등 영남권 관람객들은 내년 5월부터 광양과 여수를 바다 위로 연결하는 이순신대교(2.26km)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부산에서 남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2시간대에 엑스포장까지 닿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활발한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목포-광양 고속도로(106.8km)는 역시 내년 5월 박람회 전까지 개통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서해안선과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람객과 무안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은 이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대에 박람회장에 접근할 수 있다. 외국인 관람객을 위해서는 특별히 인천국제공항에서 여수공항까지 임시 국내선 항로

개설 및 김포-여수 간 국내선 증편 등 다양한 접근 수단을 확보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람회장 내에 크루즈선, 국제 및 연안 여객선이 모두 접안할 수 있는 해상여객부두와 터미널도 조성되고 있다. 박람회 기간 중 통합여객터미널을 운영해 남해, 하동, 통영, 부산, 제주권역과 중국, 일본 등 동남아 지역의 관람객을 활발하게 유치할 계획이다.

숙박 대책도 구체적으로 세워두고 있다. 여수박람회는 여수뿐 아니라 남해안 전체의 행사이자 축제이고, 관람객들도 여수박람회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아름다운 남해안 도시들을 함께 둘러보게 된다. 때문에 승용차 기준으로 볼 때 여수, 광양, 순천, 하동, 광주, 담양, 남원, 고창 등 2시간 이내까지도 숙박권역으로 확장했다. 이 경우 총 11만실로 약 7만3천 실 가량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위에서는 숙박권역 확대와 함께 남해안 관광자원과 연계한 권역별 관광코스(41개)와 수학여행 코스(9개)를 개발하고,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http://expotour.expo2012.or.kr>)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시설과 서비스가 우수한 숙박 업소를 지정하고, 지원하면서 기존 숙박 시설 수준을 제고하고 있다.

한편 호텔·콘도 등 고급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민간 투자를 유치하여 VIP용 호텔(총 310실)을 건립 중이며, 시설 및 서비스가 우수한 모텔, 펜션 등을



▶▶ 1 박람회장 내에는 크루즈선, 국제 및 연안 여객선을 탈 수 있는 통합여객터미널도 생긴다. 2 여수세계박람회장 인근에 건설되는 엠블(MVL)호텔은 310실 규모의 특급 호텔이다.

엑스포 지정숙박시설로 지정, 고급 숙박 수요에 대응하려고 한다. 인근 대학인 전남대·순천대 와도 기숙사(총 777실)를 박람회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다. 이밖에도 특색 있는 체험형 숙박시설 제공을 위해 캠핑파크, 템플스테이 및 농어촌체험마을 및 홈스테이 등을 활용하고, 박람회 엑스포타운(586실)도 관람객 숙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 박람회 기간 중 가용 객실의 극대화 및 공실 최소화를 위해 숙박정보시스템(숙박콜센터)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실시간 숙박정보를 관람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ST**

세계박람회가 뭐지? 알고 보면 익숙한 세계박람회



▶▶ 에펠탑은 1889년 파리 세계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흔히 엑스포(Expo)라고 불리는 세계박람회(International Exposition)는 세계에서 가장 크게 열리는 전시 관람 행사이다. 2년에 한번 꼴로 세계 각지에서 열리며 적게는 수십개국, 많게는 100여 개국이 참가해 특정 주제에 맞는 전시를 선보인다. 관람객도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7천만 명(2010 상하이엑스포 기록)에 이른다. 세계박람회는 1851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돼 올해로 160주년을 맞는다. 당시에는 영국의 영토가 전 세계의 25%를 차지했을 만큼 넓었고, 세계박람회도 초기에는 개최국의 국력과 산업 기술을 과시하는 행사였다. 하지만 점차 박람회의 성격이 자리잡아감에 따라 여러 나라가 모여 각기 특정한 주제를 놓고 인류의 현안과 미래의 지구를 고민하는 자리로 탈바꿈해갔다. 또 낙후된 도시들은 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국제적 명성과 발전을 얻기도 했다. 스페인 세비야박람회(1992)와 포르투갈 리스본박람회(1998)가 그 대표적인 도시이다.

세계박람회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둘러보는 것과 같은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다. 세계박람회에서는 당대의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과 기술이 공개됐다. 지금은 일상화된 전화기, 자동차, 비행기, TV, 대관람차 등은 세계박람회 에서 처음 등장해 충격과 환희를 주었다. 에펠탑(1889, 파리세계박람회)과 같은 랜드마크들은 세월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퍼와 껌, 타임머신,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도 과거 세계박람회 때 처음 선보여 실용화된 것들이다.